

작은 그릇 속에 담긴 꿈의 불씨

전연옥의 「불란서 영화처럼」

간간이 발표되는 전연옥의 시를 읽을 때마다, 어서 그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한편의 책이 나오기를 바랐다. 그것은 전연옥 시인이 추구하는 아주 작은 세계 혹은 하찮은 대상으로부터 벌어진 상상력의 싱싱함에 매료된 독자의 꿈이었다. 그러다가 비로소 시집 「불란서 영화처럼」을 만났다.

초기시에서부터 시집에 담긴 55편의 시를 읽어가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아름다움은 '작은 세계의 처연함과 불씨'였다.

전연옥의 시는 상상력의 끝간 데 없는, 조금은 엉뚱한 언어가 모여 나름대로의 몫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시를 읽어보자.

구구단을 외우며 / 잘 외워지지 않는 / 팔단과 구단 사이의 수풀이 헤쳐며 / 산수 공책 속을 더듬어 나오면 / 수수깡 안경 너머로 달빛은 흐르고 / 흐르는 곳 깊은 물이 되어 / 못 다 외운 구구는 팔십일 / 그 속에 남아 있어도 / 내일은, 급장에게 밀물 같은 소식이 라도 오려는지 / 이리도 미역 냄새 진해오는 데 / 순이야 잘 있었니 / 나도 잘 있단다

이 시의 제목을 가리고 읽는다면 아주 어려 가지 제목이 붙을 수 있겠다. '추억'이라든가 '편지' 따위 말고도, 어린날의 어떤 삽화를 떠올리는 제목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제목은 우리말이 아닌 「클레멘타인」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런 제목이 붙었을까?(물론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낳은 시일 수도 있다)

그것은 아마도 시인 자신이 남기고 싶은 어떤 풍경에 대한 안쓰러운 곱씹음의 존재론적 인식의 顯現인 것 같다. 즉, 자기 추억의 순간

포착에 충실한 반응에 다름 아니다. 시인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심정적 세계를 추억에 넉넉히 기대어 전혀 엉뚱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전혀 엉뚱한 그림이라는 寸評은 다소 모호한 표현일 수 있다.

시집 전체를 물들이고 있는 어조는 착 가라앉은, 대상의 촘촘한 응시와 묘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이 바쁜 세상(특히 후기 산업주의가 팽배한)에서, 털썩 주저앉아 자기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고 천착하는 시인의 넉넉한 목소리는 오래도록 깊은 메아리를 줄 것이다.

특히 해심해심한 시들이 시의 전부인 양 읽혀, 시집도 베스트셀러 어찌고 하면서 떠들썩한 이 땅에서, 전연옥의 시들은 아주 깊이 숨은 작은 목소리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그 작음은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옹골찬 자기 세계를 담고 있어 여간 흐뭇한 게 아니다. 그러나 그 흐뭇함에는 이 세상의 못된 풍경들도 어쩔 수없이 겨안아야 된다는 짐으로 다가온다.

좋은 시가 흔히 그러하듯이, 전연옥의 시 또한 아주 쉬운 언어로 앞뒤 문맥이 잘 통하는 구조로서 주로 이 세상 매듭에 일격을 때리는 시적 표현이 돋보인다.

'까치는 참 촘촘네'에서 보여주는 꿈의 和解로운 잔치는, 지성을 걸들인 한국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편린을 보여주는 듯싶다.

심상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46-2·회사원

고승의 혜안으로 풀어 가는 장자의 道

「감산의 장자풀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태도로 삶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번혁의 물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밀려오고, 혼란이 심해지는 현대의 생활속에서 자신을 상실해가는 현대인에게 「감산의 장자풀이」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감산(1546~1623)은 명나라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인간정신의 정수를 찾는 데 생애를 바쳤다고 여겨지며, 그는 어느 선지식보다도 노장사상을 높이 평가했다. 감산은 유불선 삼교를 근본적으로 탐구하였으며, 따라서 장자를 보는 그의 관점은 단순한 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교를 두루 통하여 꿰뚫는 논리가 있다.

장자는 기원전 370년에서 280년 무렵 송나라에 살았던 인물로 전쟁과 살륙, 권모와 지략으로 점철된 전국시대에 부자유하고 뒤죽박죽인 현실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다워지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장자에 따르면 인간은 지극히 협소한 공간과 단축한 시간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원치도 않았던 삶을 부여받아 명리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갈등·투쟁하면서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 상해하는 미혹속에서 일생을 보내며, 평생을 근심·걱정속에서 괴롭게 살다가 지쳐버리지만 어디로 귀의하는지조차 모르면서 그의 의지와 소망에 관계없이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존재자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철저한 현세주의자인 장주는 그 나름의 통찰과 직관적 예지로서 비유와 우화, 날카로운 풍자와 역설 등을 통하여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안으로 초월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의 구속과 속박에 직면하여 지금

여기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타낸다. 그는 도의 체득만이 인간정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도를 체득한 사람만이 광대하고 자유로운 경계에서 노닐 수 있다고 보았다.

장주는 도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를 꺼린다는 인상이 선명하다. 실제로 장자에서 시비·대소·미추·유무·유용과 무용·대상과 주체 등을 대비하여 기준에 갖고 있는 갖가지 아집과 선입견을 깨뜨려 주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 같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자연계의 삼라만상의 법칙이며 인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자가 깨달은 인간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도는 생명을 무한의 시간과 공간 사이를 마음대로 드나들게 한다는 다소 그림자를 쫓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큰 의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규석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11-1 강남아파트 1동 406호·학생

프로는 프로페셔널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 원고에서 제작까지 그리고 광고기획도 책임집니다. ”

모든 일이 세분화되면서 더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능한 출판인이나 편집자의 역할은 요소 요소마다 누가, 어디가 가장 적합할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림문화의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은 프로정신과 프로근성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 우림문화가 하는 일

- 출판 기획 · 편집 대행 · 광고 기획
- 원색 제판 · 전산 사식 · 수동 사식
- ※ 사보와 사사 등의 기업문화 간행물과 잡지(정기간행물) 창간을 도와드립니다.

● 우림문화의 제작 시스템

- CTS 조판·편집 시스템 · 원색제판 시스템
- Art Work 시스템 · 전산출력 시스템

● 우림문화의 일꾼

10여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책임자들과 30명의 정예 태스크 포스팀이 작업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짧을 수 없는 짧은 여행

기형도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

80년대, 시의 바이브레이션이 유난히 화려했던 시절의 한구석을 차지하고서 '입속의 검은 잎'이 발아하는 熱感으로 들뜬 잇몸을 어루만졌을 기형도의 죽음. 단지 요절문인명단의 한줄을 매꾸는 일로 정리되기에 미련이 남는 그의 죽음은 시에 목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등단 5년만에 나온 첫시집 「입속의 검은 잎」을 가슴에 안아보는 후끈한 떨림의 순간을 맛보지 못한채, 뚜껑 뚜껑 세상 밖으로 걸어갔을 그.

하지만 그 단절의 의식이 기형도를 아끼고 사랑했던 적지 않은 이들이 갖고 있는 기억의 시간까지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 이유에서 그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 기형도란 이름 앞에 故자를 붙이고 싶지 않은 까닭 또한 그렇다.

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가 당선되어 등단하게 된 그는 정치부, 문화부, 편집부를 두루 거친 유능한 신문기자였기 보다는 만화를 즐겨 그리고 노래를 '씩' 잘 불렀던 따뜻하고 재주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시인이었다. 물론 시인으로서의 그에 대한 평가는 유일한 시집이 된 「입속의 검은 잎」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 타계한지 1년만에 나온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은 그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거울의 뒷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름휴가 여행의 나른함에 도금된 우울함이 엮처럼 눌러 붙은 기행문 '짧은 여행의 기록'을 비롯해 일기, 편지, 단상, 단편소설, 서평, 신문기사 등 그의 필흔이 남아 있는 모든 글과 절친한 문우였던 시인 원재길의 추억담으로 엮여진 이 산문집에서 안타까움으로 가득찬 기형도 시인의 '짧은 여행'과 같은 생의 껍질만

이라도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쁨이자, 불행이다. 이러한 불행이 그의 글을 더 이상은 대할 수 없다는 좌절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천박한 독자의 모습이라고 비난 받을까.

'소년 장정일'과 나는 세기말에 대한 이야기, 열사 이한열 어머니와의 우연한 만남, "멜라니 샤프카의 노래를 들으며 슬픔에 젖은 깔대기 종이 같이" 허약하다고 자신을 표현한 편지에서 이미 그에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음을 짐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의 축에 끼지 못할 것이다.

'사갈을 사랑한다' '東柱의 시...'라는 낙서가 박힌 엽서를 바라보면서, 종로의 삼류극장 안에서 담배연기와 귀퉁한 그곳 특유의 냄새를 머리카락에 묻히며 시작 노트와 알로 만들어진 소화가재가 든 가방을 빈 옆자리에 얹혀 놓고 결코 짧을 수 없는 '짧은 여행'을 떠났을 기형도 시인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

전화라도 걸어야겠다.

김남아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533-14

지구촌 모든 분야의 문제 다뤄

마키노 노보루의 「全予測 1990년대의 세계」

자신의 관점과는 먼 거리에 있는 책을 읽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지만, 나같은 순진한 독자는 우선 나의 관점과 다른 관점의 세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이다. 혹시 내 울타리 안의 것보다 더 좋고, 더 풍부한 어떤 것이 있다면 배워야지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소박한 마음이 본 1990년대의 세계는 무척 복잡하고 변화가 다양하지만, 그 복잡성과 변화의 밑바닥에는 기술혁신이 관통하고 있을 세계였다. 그래서 일본의 대개별 산하의 연구소가 퍼졌고 제목도 다소 거만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이 책을 손대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책은 '기술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 관점의 내용은 프롤로그에 다섯가지로 나와 있다. 첫째가 '글로벌화'(지구 규모화). 여기서는 자본이 국경을 넘어 생산공장의 건설, M&A(기업의 인수·합병)의 실시, 연구개발, 관리부문까지 지구규모에서 최적지를 선택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 1990년대 경영의 경향이라고 한다. 두번째 키워드가 사회주의로, 최근 사회주의의 개혁 움직임이 그리 순조롭지 않은 것이라곤 본다. 세번째는 '스톡 경제화'. 실질자산의 규모를 훨씬 웃도는 토지와 금융자산 증가는 거품과 같은 것이라면서 다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번째 키워드는 아시아이다. 2000년의 경제점유율에서 아시아는 북아메리카의 36% 다음으로 34%를 차지할 것이고, 최근 ASEAN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눈부시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패권'이다. 고르바초프도 "기술혁신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토록 발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연설한 적이 있지만, 기술혁신은

무역마찰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고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기술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것이다.

이 책은 경제, 정치, 산업, 경영, 사회, 기술, 지역의 7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마다 스무 개 안팎의 항목들이 들어 있다. 70명에 가까운 필자가 넓은 분야의 많은 항목을 집필하였지만, 대표저자의 관점이 없더라도 대체로 고른 일정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될 성싶다. 그렇게 견지되고 있는 관점은 통속적인 일본 독점자본의 이해의 대변이 아니고 '글로벌화' 시대에서 일본의 책임에 대해 논하기도 하고 한국산업이 현재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성공의 열쇠는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격정해 주기도 하는 '통큰'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지구 전체의 문제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다소 상식적이라는 점은 실망스러웠다. 물론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상식 수준의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도 나같은 독자에게는 수확이 없었지만, 특히 그간의 신문, 잡지 기사를 정리해 놓은 듯한 정치, 사회분야에서는 좀더 장기적이고 튼튼한 관점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풍부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서술이 아쉬웠다. 이것을 '기술주의' 관점의 책이 줄 수 있는 한계라면 건방진 생각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90년대는 반대기업의 저류속에서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시대"가 될 것이 틀림없다는 말에서 독점기업의 우려와 준비를 엿본 것이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남영호

서울시 마포구 아현3동 631-4

국내최초공개!
"우주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아)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독자 여러분 **신비한 UFO** 비행음을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수) **들어 보세요.** 있습니다.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시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아>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 N. TV에서 농부<마이아>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 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라고도 신선한 사연들.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아> 이야기—

- 주요목차
 - 농부<마이아사건>의 충격
 -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 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 탄생의 비밀
 - IBM보오겔 박사의 증언
 -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가 오시아 역을 ● 정우인 옮김 ● 사진제공 농부 마이아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신국판/242면/값3,500원

도서주문 진명서적 : (02)272-5871
을지서적 : (02)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549-6817
F A X : (02)549-6816